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f Subject Catalogue Related to Bibliotherapy in the University Library

이현실(Hyun-Sil Lee)*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치유하여 건강한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자기 성장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달적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제시하였다. 독서치료의 유형과 청년발달의 이론을 고찰하고, 대학생 상담 조사와 타대학 독서치료 주제목록 제공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주제를 '육체/정신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진로발달'의 4개 영역을 설정하여, 중주제와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대학 신입생 때부터 발달적 독서치료를 통하여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전개할 수 있다면 대학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독서치료, 청년, 대학생, 발달적 독서치료, 대학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Subject List for Developmental Bibliotherapy", for the purpose of offering self-development information to university students to assist them in identifying problems, and solving them while strengthening their egos. Theories relating to developmental psychology of young adult, results of analysing of student survey and successful examples of bibliotherapy subject lists from other universities have been applied for classifying of subject of this study. The four classes, are physical/mental development, social/emotion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and career development, have been classified into sub-classes and divisions in this study. With fixed career goals based on documents of developmental bibliotherapy, students

can manage a more effective university education as early as their freshman year.

【Keywords】

Bibliotherapy, Young Adult, University Student, Developmental Bibliotherapy, Academic Librar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 개발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독창적인 지식 창출과 건설한 인재 양성 위하여 21세기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대학의 발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늘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여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예전과는 다른 교육기능이 요구되고 있고, 대학도서관에서도 이를 지원하여 급변하는 세상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적응하고, 심리적인 측면을 돌볼 수 있는 내용의 장서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루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지만,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아에 대한 성찰의 여유 없이 취업이 생존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의 구성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왜곡된 삶의 구성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오현숙 2008). 학생들은 꿈을 향한 선택과 정체성에 큰 위기를 겪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을 열

* 원광대학교 도서관 사서(hyunsil@wonkwang.ac.kr)

어 타인과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도서관에서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야 할 대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제의 개발과 편리한 접근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육과 학문연구를 지원해왔던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 제공 외에도 새로운 정보서비스 개발을 통해 진화하는 성장 유기체이고, 도서관이 진화하면서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노동조, 민숙희 2010; 김동화 2010).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이용자 요구의 적극적 수용은 물론 내재된 요구까지도 파악하는 이용자 지향적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치유하여 건강한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자기 성장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독서치료의 성격을 논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해야 할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설계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독서치료의 내용을 구상하여, 구조화한 주제목록을 작성하고자 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독서치유와 청년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독서치료의 모형을 파악하고, 청년발달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기의 자아 성장에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 파악을 위해, W대학교 학생지원센터 상담실의 신입생 기초조사 중 '교수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과 '상담소에서 개인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에 관한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셋째,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독서치유 목록제공 사례를 조사하여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 치유를 위해 일반적으로 어떠한 주제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도입하여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앞에 고찰한 독서치료 및 청년발달 이론, 대학생 고민 파악, 타대학도서관의 독서치료 내용 분석을 토대로 W대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주제 목록의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계한 독서치료 주제에 해당하는

도서 선정 영역까지 연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발달적 독서치료 도서 선정을 위한 도서관 현장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2. 발달적 독서치료와 청년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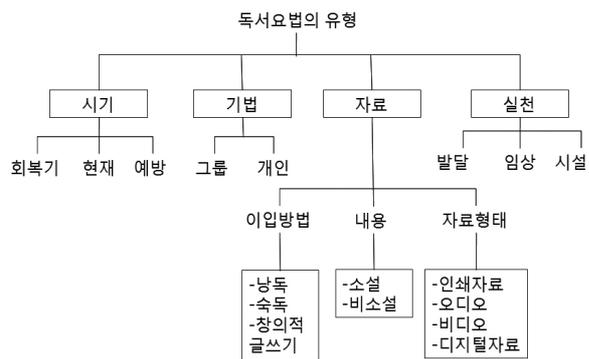
2.1 독서치료와 도서관

최근의 독서치료는 1930년대 도서관 사서가 치유적 목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의 리스트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이어서 미국의 도서관협회(ALA)가 양대 세계대전 이후, 퇴역한 병사들이 전쟁 중 얻게 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후원하면서 병원도서관의 독서치료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기술, 의학, 심리학의 발전으로 임상 치료의 성격을 띠게 되어, 도서관으로부터 교육학, 심리학 영역으로 확장되었다(Pardeck 1994).

독서치료는 도서관 서비스의 일종으로 참고서비스, 독서지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두 교육과 안내를 필요로 한다. 독서치료가 참고서비스나 독서지도와 다른 점은 치유를 목적으로 장기간 접근되는 도서관 서비스라는 것이다. 교육적인 상황에서 독서치료는 교정적(corrective) 차원과 예방적(preventive) 차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교정적인 차원에서는 상담사, 사서, 교사 등이 유사한 상황을 다루는 책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해결하도록 이끌어간다. 책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미래에 처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는 책을 읽도록 요구된다. 책을 읽음으로써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독서치유의 목적은 (1) 개인의 자아 개념 발달, (2) 인간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 확장, (3) 정직한 자기평가 능력 육성, (4) 자기 자신 밖의 흥미를 발견하는 방법 제공, (5) 감정적 정신적 압박 완화, (6) 특정 문제가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확인, (7) 문제 해결에 하나 이상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 인식, (8) 보다 자유롭게 문제를 논의함, (9)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설적인 행위 지원 등이다(Bibliotherapy Fact Sheet 1982).

전통적으로 독서치료의 유형은 임상적(clinical)이거나 발달적(developmental)인 것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독서치료는 시기, 기법, 자료, 실천 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는 시설적(institutional), 임상적(clinical), 발달적(developmental) 유형의 3가지 범주로 기술될 수 있다(Rubin 1978; bibliotherapy 2008).



<그림 1> 독서치료의 구분

시설상의 독서치료는 어떤 시설에서 교훈적인 정보 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이 당면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치료사들이 의료진과 팀이 되어 개인대 개인의 상황에 독서치료를 실시한다. 임상적 독서치료는 감정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상상적인 내용의 정보를 주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팀 구성은 독서치료사, 임상 종사자들로 이루어져 통찰력 습득이나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커뮤니티에서 보통 사람들을 위하여 상상적이거나 교훈적인 정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고, 독서지도 사서나 교사 등이 대상자의 정상적인 발달, 자아실현,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다(Cronje 1993). <표 1>

이 실천적 측면에서의 독서치료 방법을 비교 요약한 것이다.

독서치료는 현대사회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에 보다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독서를 읽음으로써 문제를 확인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아픔을 보상받으며, 절제된 방식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회를 만난다. 엄선된 책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거나 확인하면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이것이 문제에 보다 적합하고 건강한 대처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책은 생각을 유도하고 성격을 강화하는 행동형성의 강력한 도구로서 널리 인정받아 왔는데, 현재는 인간문제 해결의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많은 대체 요법들이 있지만 독서치료는 다른 치료들보다 안전하고, 개인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중에게 보편화 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도서관 입구에는 “영혼의 치유 장소”라는 뜻말이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독서를 통해서 자기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비공식적인 독서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서는 자아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행위로서 도서관은 모든 형태의 독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미국의 도서관·정보학 과정에서는 학제적 접근으로 독서치료 분야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제공하던 독서 안내나 지도 등의 도서관 서비스가 독서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대치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독서치료는 도서관·정보학에 새로운 영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깊이 있는 학문발전을 위하여 인간이해를 위한 인지발달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Weaver 2010).

<표 1> 독서치료의 실천적 범주

	시설	임상	발달
형식	개인, 그룹; 수동적	능동적 그룹; 자발적, 비자발적	능동적 그룹; 자발적
고객	환자, 수감자, 수련원생	감정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정상인, 위기상황
협약자	사회	사회나 개인	개인
치료자	의사와 사서 팀	의사, 정신보건원, 사서	사서, 교사 등
자료	전통적인 교훈	상상적인 문학	상상적 문학 및 교훈
기술	자료의 토론	고객의 반응과 통찰을 강조한 자료의 토론	고객의 반응과 통찰을 강조한 자료의 토론
환경	기관이나 수련원	기관, 수련원, 커뮤니티	커뮤니티
목적	통찰의 정보 제공	통찰 및 행동 변화	정상적인 발달과 자아실현

한편, 독서치료를 포괄하는 범주로 과학(Science)과 예술(Art)이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과학으로서 독서치료는 개인에게 특정 도서를 추천하는 것 이상의 행위로, 엄격한 계획과 지식 및 심리적 고려를 요구하는 신중한 과정이다. 따라서 의사나 심리전문가의 임상적 진단 후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책이 추천된다. 이는 임상 전문가와 치료사나 사서의 상호협력 기술에 의한 직접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예술적 차원에서는 독서치료가 독서 안내 또는 자기-도움의 개인적 수단으로서 비지시적인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다. 예술로서 비임상적인 실행자로 사서나 교사가 심각하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엄선한다(Varner 2009). 독서치료가 사람을 잘 이해하고, 책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인간 요구에 호의적인 예술이기 위하여 사서 역시 과학자와 같은 역량을 가진 전문가이어야 한다. 도서관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사서들에게 정신건강에 관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Cronje 1993).

우리사회는 인간 개개인의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도서관은 책이라는 중요한 치유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어느 기관보다 선도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신주영(2004)은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 (1)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과 사서들의 인식 제고, (2) 독서치료에 효과가 있는 독서목록을 제공, (3) 독서치료에 대해 도서관 대내외적 홍보, (4) 독서치료 코너를 만드는 등 구조적 조직화, (5) 정신보건 관련 기관과 연계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도서관 기능은 개인적인 발달이나 정서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풍부한 정보 제공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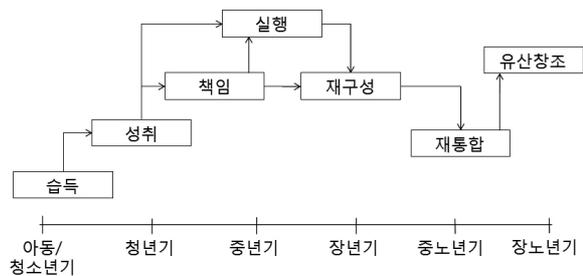
2.2 청년발달의 범주

청년기라면 누구나 정체감 혼란과 연령대에 이루어야 하는 과제, 부모와의 애착분리, 성인기로의 이행에 대한 두려움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에는 생애 설계라는 결과적 과제 외에 자아 정체감 확립이라는 과정적 과제를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이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가능성 사이를 방황하는 불안정의 시기이면서 전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 시기이기도 하다(곽금주 2008). 이러한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족적이고 자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 더욱 안정적인 삶과 자

신의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충분히 이루어내야 한다.

Papalia(2001) 등은 청년기(young adult) 발달을 육체적, 인지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의 측면에서 발달과정을 서술하였다. 청년기의 육체적 발달은 전 성인기 생애의 건강에 기초가 된다. 이 시기에 먹는 것, 활동, 담배, 음주, 약물 등이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청년기는 건강이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폭력이나 다른 위험에 신체가 노출될 수도 있고, 건강도 적절한 섭식, 운동에 의해 유지된다. 스트레스도 양이 적을 때는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빈번하게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위협한다. 또한 좋은 건강 역시 소득, 교육, 성이나 결혼 등과 큰 연관이 있다.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성인은 어린이와는 다르게 대화하고, 보다 복잡한 사물을 이해하며, 문제 해결에 폭넓은 경험을 이용한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와는 달리 청년기에는 자신의 학업성취를 위한 지식 습득보다는 유능해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식을 사용할 줄 안다. 자신의 독립을 위한 지식을 성취하고, 스스로 정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직업, 가족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Schaie와 Willis(2000)는 인지적인 인간발달의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묘사하였다.



<그림 2> 인지발달의 단계

Robert Sternberg(1985)는 지식을 구성적(componential) 지식, 경험적(experiential) 지식, 맥락적(contextual) 지식의 3가지 양상으로 설명하였다. 구성적 지식은 효과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비판성을, 경험적 지식은 참신하고 친숙하게 과업에 접근하는 통찰력을, 맥락적 지식은 주어진 환경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특질을 나타내는데, 성인기에 발달되는 경험적, 맥락적 지식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 청년기에는 특히 유연하게 열려있고, 적응력 있는, 논리적 형식을 넘어선 사고의 발달이 전개되어야 한다. 나이가 저절로 사람의

사고를 성숙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발달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때, 사고의 성숙이 이루어진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통합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면서 성숙된 사고가 발현되는데,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진다(Papalia and Olds 1995).

한편, 성인의 도덕발달은 근본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도덕적 사고는 인지발달에 의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도덕적인 한계 없이는 사람의 재능이나 감정적 지성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청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학교, 종교지도자, 대중매체 등이다. 청년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주는 매체로서 미디어는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정보의 장이지만 오늘날,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청년발달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경우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의 자료가 더 편협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적, 사회적, 감정적 발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대학 시절에 정보사용에 대한 바른 인식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도덕, 윤리, 가치가 문화적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도덕성 상실 등의 많은 도덕적 혼란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덕발달 및 관련 영역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도덕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허혜경, 김혜수 2002).

청년기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인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다. 또한 이 시기는 스스로를 누구의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서 중요한 관계의 성립과 함께 자신을 충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Feldman(2000)은 청년기의 발달을 육체적 발달과 스트레스, 인지적 발달, 대학, 관계형성, 일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청소년기에 이어서 인지적 능력은 형식과 논리를 넘어서 해석적이고 주관적인 사고의 범위로 발전한다. Guilford(1967)는 창의적 사고를 지적 능력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는데,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확산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해답을 할 수 있는 사고로, 하나의 정답을 유도하는 사고인 수렴적 사고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대학에서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견해를 받아들이고, 상대적 관점에서 가치를 보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대학 시절은 청년들이 미래 직업의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창

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Ginzberg(1972)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아동 후기부터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발달과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의 직업선택의 이론에서 보면 사람들은 보통 직업 선택에 3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환상적 단계(fantasy period)로 보통 11세까지의 어린이는 기술이나 능력, 기회와 관계없이 개인적 소망에 의해 장래의 직업을 선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시험적 단계(tentative period)로 청소년들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직업들의 요구사항이나 직업이 요구하는 자신의 능력 함양 방법들을 실제로 생각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 단계는 현실적 단계(realistic period)로 청년들이 직업을 위한 전문적 소양을 쌓거나 경험을 통해 직업 선택을 개발하는 때이다. 현실적 시기인 청년기의 직업선택은 자아의 정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며, 청년기의 가일층 발달된 인지능력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숙고하며, 자신의 능력, 가치관, 진로를 검토하며 방황과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럽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허혜경, 김혜수 2002). 인간은 나 혼자만이라는 근원적 소외감을 지닌 존재이다.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책임을 수반하는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며, 청년기에는 관계의 형성과 친밀함이 주요 관심사이다.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큰 시기이고, 적기에 미래의 삶에 바탕이 되는 중요한 인간관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기의 행복감은 물질보다는 주로 독립, 경쟁력, 자기존중, 관계에서 비롯된다. Harter(1999)는 대학생들의 자기 지각 검사 하위 영역을 지각능력, 학업적 능력, 사회적 수용, 신체매력, 부모관계, 우정, 지적능력, 도덕성, 이성관계, 유머, 창의성, 운동능력, 자기 가치감의 13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옥분(2005)은 청년발달 개념으로 생물학적 과정, 인지적 과정, 사회정서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세 개의 영역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밝혔다. 허혜경과 김혜수(2002)는 청년기의 발달 특성을 신체발달, 인지발달, 자아개념과 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성역할 발달로 범주화 하였고, 청년기의 사회적 맥락으로는 학교의 영향, 가정의 영향, 동년배 친구의 영향, 전자영상매체의 영향, 청년기의 사랑과 같은 환경

적 맥락이 청년들이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청년기는 인생에 중의 한 부분이지 발달선상에 고립된 시기가 아니며, 청년기의 독특한 특성이 있지만 인간 발달의 연속과정으로 전 생애 발달기와 과정과 경험에 연관되어 있다. 앞에서 고찰한 청년발달 분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1) 뇌, 감각, 신체, 건강 등 생물적 성숙과 관련된 신체적 발달, (2) 학습, 문제해결력 등의 지적 능력과 관련한 인지적 발달, (3) 성격,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 등과 관계된 사회·정서적 발달의 영역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청년발달 영역

육체와 정신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적발달
- 건강 - 약물 - 흡연 - 음주 - 성(남성과 여성)	- 창의성 - 학업 - 직업 - 도덕 - 인생관(가치관) - 직업 - 사고 - 대학	- 관계 - 사랑 - 가족(부모) - 폭력 - 자기이해 - 친구 - 자아(자기가치감) - 성격 - 전자영상매체 - 사회적 수용 - 유머

3. 대학생 상담과 진로

3.1 학생상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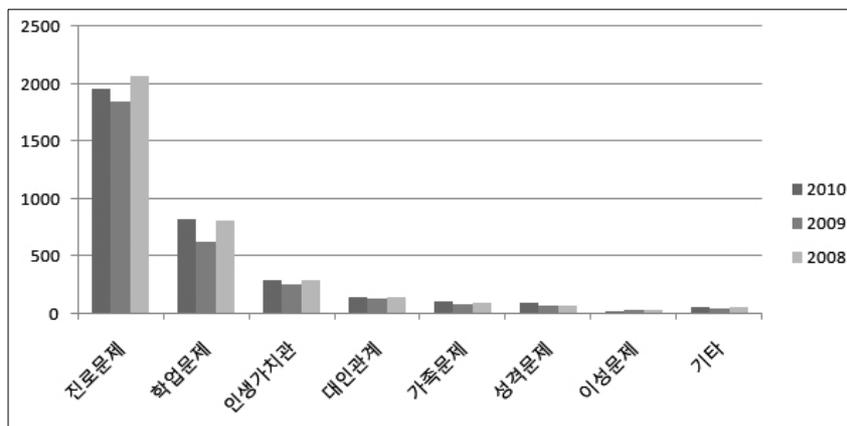
W대학교 학생지원센터의 상담실에서는 매년 신입

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여 학생지도 및 상담에 참조하고 있다. 조사를 통하여 신입생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 가치관, 진로계획, 대학생활 적응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내적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서를 효과적으로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주제 목록 작성 위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민을 파악하고자 '교수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과 '상담소에서 개인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에 관한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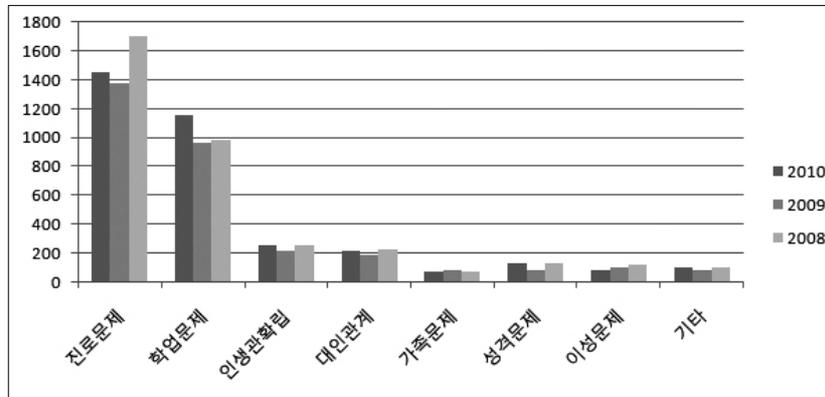
학생들이 '교수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2008년, 2009년, 2010년은 모두 진로문제, 학업문제, 인생가치관, 대인관계, 가족문제, 성격문제, 이성문제의 순이었다(표 3 참조). 이와 비교할 때, 학생들이 '상담소에 개인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에서는 앞 순위인 진로문제, 학업문제, 인생가치관 확립, 대인관계의 순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그 다음이 성격문제, 이성문제, 가족문제의 순으로 교수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표 4 참조).

모든 조사에서 신입생에게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매년 40% 이상)였고, 그 다음이 학업문제(매년 20% 이상)인데 학업문제는 진로문제의 또 다른 고민으로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80% 이상이 취업을 위한 과외를 받기를 원하며, 이들의 사교육비가 년평균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Moazine 2010).

<표 3> 교수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



〈표 4〉 상담소에서 개인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



3.2 대학생 진로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대학의 현상을 보면, 직업세계로의 이행 전 단계인 국내 대학의 교육환경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대학수학능력의 한계, 입학학생의 학과 부적응 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의 경우 중등단계에서 자기의 이해를 통한 진로 선택보다는 부모, 교사, 성적에 의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주변 환경에 따른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로 인해 개인의 진로개발이 대학단계로 전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근 1988). 즉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재와 고학력 추세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결정 시기가 대학으로 연기되고 있는 점 등은 대학에서 진로지도도를 더욱 필요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해당 연령 중 대학생이 15% 이내이면 엘리트형, 15-50%이면 대중화, 50% 이상이면 보편화단계라고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해당연령 중 대학생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서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이런 보편화 단계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다. 우리의 대학기능이 단계에 맞게 변화하여 산업사회에 적응할 보편적 국민 양성에 주력했다면, 현재 대학졸업자의 취업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오현숙 2008). 우리의 대학은 기존의 엘리트형 대학기능에 안주해옴으로써 대학은 취업과는 별개의 곳이 되고 취업의 문제는 대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에서 진로지도 관련 기구가 양적으로 확충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학생생활연구소, 취업정보센터로 분산된 조직체계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

업상담, 진로상담 및 지도와 취업지도도를 별개로 다루고 있고, 또 서로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 지원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효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장호 2005). 또한 학생들의 취업 성과를 보면 대학교에서의 교육적 지원 노력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취업지원활동 정도만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고, 학과 커리큘럼 및 내용이나 수업방식,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장학제도, 인턴쉽 등)은 졸업생의 취업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교육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채창균, 김태기 2009).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는 치열한 학업성취 경쟁으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취업문제로 새로운 경쟁과 고민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뚜렷한 목표설정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기보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89.4%)으로 나타났다(박기문, 이규녀 2009).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진로개발을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부터 요구되어 진다. 발달상으로 대학생은 청년기에 속하면서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구성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이에 맞게 준비된 책을 제공한다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신의 가치 발견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에 도서관은 대학생 진로에 관하여 독서치료라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조력할 필요

가 있다.

4.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제공사례 분석

4.1 Oxford Brookes 대학도서관

Oxford Brookes 대학의 학생상담 서비스는 학생들의 걱정과 우울감 또는 일상적인 감정 문제에 경미한 증상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치료 스킴을 설계하였다. Brookes 독서치료 스킴은 2003년 Cardiff Count에서 개발한 방법을 도입한 것인데, Cardiff에서는 시립도서관과 의료 전문인의 협력으로 시작되었고, 후에 Wasles 전역에서 보건서비스로 책처방(Book Prescription Wales)이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 이 지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정신보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천 도서로서 양질의 자기도움 도서 목록을 만들었다. 환자들이 이 추천 도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ardiff County의 중앙도서관과 모든 분관 도서관에서 해당도서가 구입되어 서비스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지 1년 만에 Cardiff 도서관에서 1,600건 이상의 도서 처방이 시행되었다. Oxford Brookes 대학도서관에도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그 도서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고 평가된 50종의 엄선된 도서가 구비되면서 대학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서, 상담사, 행정가, 개인지도자, 교육자는 선정된 치유도서의 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을 추천한다. 치유도서 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1) 추천도서 핸드북: 스킴에 대한 개요와 선정된 각 도서에 대한 소개
- (2) 선정도서 목록: 문제의 유형에 따라 그룹화한 도서의 리스트
- (3) 프로그램 소개 전단: 학생들에게 배포용
- (4) 추천 패드: 추천된 도서의 항목이 적혀 있는 접지를 떼서 도서관에 가져갈 수 있음

자기치료의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도서 추천은 학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도서 추천시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고, 만족할 때까지 다양한 추천을 제시할 것이 권유되고 있다. 많은 책들이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를 토대로 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도서관의 소장본은 훼손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책을 사거나 복사하는 방법도 권유되는데, 인터넷상으로 책을 직접 주문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별도의 목록이 있는 독서치료 도서는 대학도서관 OPAC에서 일반도서와 동일한 형태로도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한다.

4.2 University of Edinburgh 도서관

최근 영국에서는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많은 연구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대학도서관과 지역도서관에 독서치료를 위한 도서를 구비하여 목록을 제공한다. 대학 도서관에서는 학생상담서비스와 협력하여 불안, 스트레스, 우울, 성마름 등의 심리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치료의 책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심리적 문제를 접근하게 하는데,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동기를 가질 때 효과적이다. 구비된 책들은 바로 읽을 수 있고, 유용한 연습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지와 함께 제공된다. 이 책들은 상담소 직원이 미리 읽고 선정하는데, 이것은 제삼자의 관점을 통한 객관화를 위한 것이다.

책은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학생이나 직원이 대출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 도서목록의 리플릿을 만들어 학생상담서비스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다. 학생상담사나 다른 학생지원부서의 직원은 처방 패드에 따라 개인적 또는 감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책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학생들은 처방 패드를 도서관에 제시하여 책을 빌린다. 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독서치료 목록은 간단한 증상별 목록과 상세한 서평 목록의 두 가지 형태이다.

4.3 University College Dublin 도서관

UCD(University College Dublin)의 도서관과 학생보건센터는 2008년부터 두 기관의 협력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한 독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Irish에서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첫 사례가 된 UCD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도서와 목록을 제공한다. UCD 학생 서비스를 후원하고 있는 와이어스 제약 회사(Wyeth Pharmaceuticals)의 자금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UCD 학생보건센터에서 특수치료와 도서처방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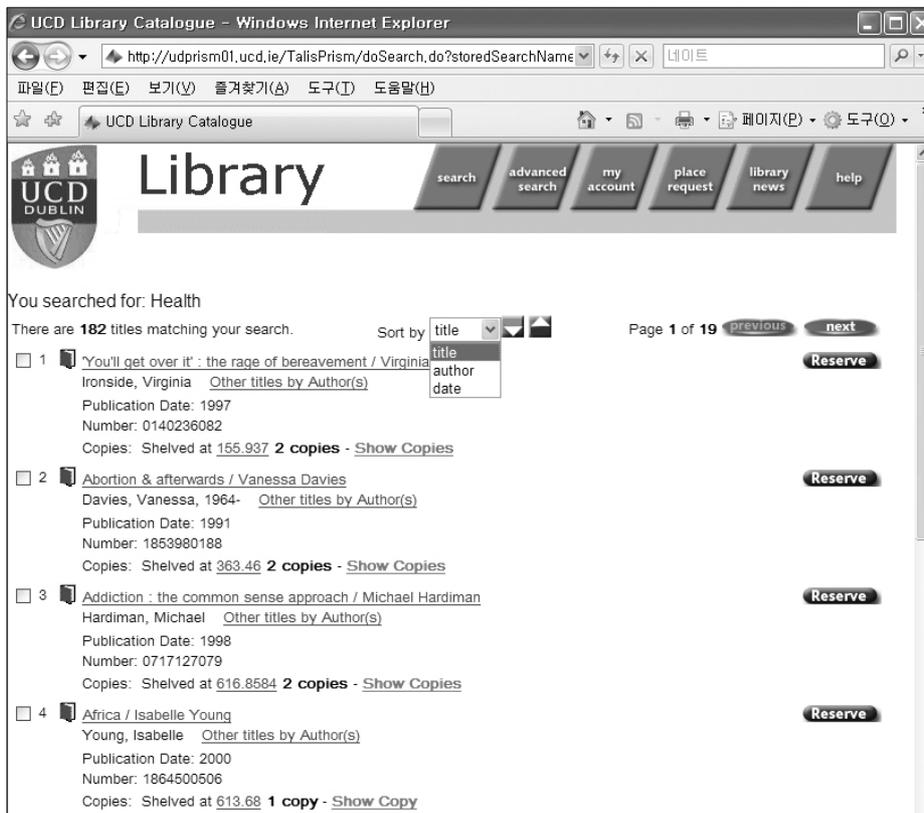
독서치료 개요는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특수한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이 담긴 도서를 처방받아 도서관에 제시함으로써 2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책이 대출되는 것이다. UCD 학생 보건센터의 모든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상담사들은 이 도서 목록 처방패드를 가지고 있다. 책은 UCD 보건대학 도서관의 "Health & Wellbeing" 코너에 비치되어 처방이 없어도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여 대출할 수 있고, UCD 대학 도서관 OPAC을 검색하면 소장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독서치유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림 3>에서와 같이 "title", "author", "date"별로 정렬할 수 있으며, 특히 분류번호를 링크하여 동일하게 분류된 다른 내용의 책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의 독서치료 서비스를 위하여 보건 및 상담전문가들이 선정하여 도서관에 구비하고 있는 183종의 도서 주제는 정신보건(Mental Health), 영성(Spirituality), 육체건강(Physical Health), 영양(Nutrition), 성보건(Sexual Health), 운동(Sport), 요리(Cookery) 등이다.

4.4 부산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대학생의 건강한 정서함양 및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그해 9월부터 독서치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독서치료라는 새로운 도서관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교내 의사전달 온라인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대부분의 교내의 건물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작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독서치료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으로 요약된다.

- (1) 독서치료 자료 코너 신설: 이용자들의 왕래가 많은 도서관 자료실 입구에 별도 서가를 비치하여 독서치료 자료 코너를 만들었고,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게 하였다.
- (2) 독서치료 자료 전시회 개최: 독서치료 관련 연구 실적물, 치유서, 타 프로그램에서 나온 치유적 글 쓰기 자료, 프로그램 참여 후기 등을 2주간 전시하였다.



<그림 3> University College Dublin 도서관의 독서치료 목록 제공 예

- (3)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 발간: 대학생을 주대상자로 한 독서치료 목록명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를 발간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은 31개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1차에 235종을, 2차에 240종의 목록을 발간하였고, 현재는 3차 목록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자료 선정기준은 이론서는 제외하고 임상적·체험적인 내용 중심의 검증된 자료이다. 목록은 각 주제관 안내서가에 비치하고, 타 도서관에도 배포하였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 게시하고 있다.
- (4)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매학기 10주 내외의 기간 동안 부산대학교 재학생 2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전공사서 5인이 순번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체험

형 독서치료로 상황별로 선정된 매체 중 한 권을 읽는 ‘치유적 책읽기’, 감정의 파장과 내면의 변화를 진솔한 글로 옮기는 ‘치유적 글쓰기’, 공감과 지지를 얻는 ‘치유적 말하기’ 과정으로 구성된다.

부산대학교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외국의 대학도서관 사례와는 달리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전공 사서를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이례적이다. 영국에서는 국가가 국민 정신보건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독서치료를 위한 도서제공을 유도하고 있고, 정신보건 센터나 학생상담소와 공동으로 독서치료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Queen Margaret과 Edinburgh 대학도서관의 독서치료 목록 제공도 유사한 사례이다. 부산 대학교를 비롯한 사례의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독서치료 목록의 주제를 비교한 것이 <표 5>이다.

<표 5>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비교

Oxford Brookes	Brunel	Queen Margaret	Edinburgh	부산대학교
- 학대	- 학대	- 학대	- 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알코올/약물중독	- 알코올 남용	-알코올		- 알코올 중 - 인터넷중독
- 화	- 화	- 화	- 화	- 화·분노 - 용서
- 사별	- 사별	- 사별	- 사별	- 삶과죽음/상실감
- 자신감	- 자신감	- 자신감 형성	- 자신감 형성	- 성장의 아픔 - 나이들 - 자아찾기
- 우울	- 우울	- 우울	- 우울	- 우울
- 섭식장애	- 섭식장애	- 섭식장애	- 섭식장애	
- 집떠남 - 문화차이	- 문화차이	- 집떠남 - 문화차이		- 일상의 벽 - 생활속의 상처
- 남성문제 - 성정체성	- 남성문제 - 성정체성		- 성적 특질	- 여자와 남자
- 충동 - 독단성	- 도박 - 독단성	- 충동 - 독단성	- 독단성	- 성인아이
- 공황	- 공황	- 공황	- 공황	
- 부모 - 입양	- 부모 - 입양			- 가부장사회/가족/결혼과이혼 - 부모와자녀/조부모 - 어른들의 몰이해
	- 공포		- 밀실공포	
- 학습기술	- 학습기술		- 대학원공부	- 학교
	- 꾸물거림	- 꾸물거림	- 꾸물거림	
- 관계	- 관계	- 관계	- 관계	- 대인관계 - 대인불안 - 소통 - 사랑

Oxford Brookes	Brunel	Queen Margaret	Edinburgh	부산대학교
- 자기존중	- 자기존중	- 자기존중	- 자기존중	- 자기존중
- 자해	- 자해	- 자해	- 자해	- 자기학대
- 자기도움 자료	- 자기도움 자료			- 마음의 평화
- 수면장애	- 수면장애	- 수면장애	- 수면	
- 스트레스	- 스트레스	- 스트레스		
- 걱정	- 걱정	- 걱정	- 스트레스	- 정신건강
- 강박증	- 강박증	- 강박증		
	- 완벽주의		- 완벽주의	
- 독서장애/운동장애		- 일반		

5. 대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주제목록 제공 방향

W대학 도서관의 독서치료는 대학교육의 변화와 함께 하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발 일환으로 시작된다. 이에, 독서치료에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청년 발달과업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기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성숙한 성인으로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대학이라는 자유 공간에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독서치료의 주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고찰한 청년 발달이론의 주제를 독서치료의 기본범주로 설정하였다.

타대학의 현상(김유현, 오현숙 2007)과 마찬가지로, W대학 학생상담소 조사에서 대학 신입생들에게 진로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대학생의 진로개발은 국가적으로도 부심하고 있는 문제로서, 직업교육정책은 우리나라 대학교육 개혁정책의 중점 사항이다. 정부는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와 산업의 변화로 직업문제와 직업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교육개혁을 구상하였으며, 직업-학습-삶 전반을 통합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청년기의 직업선택은 정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때문에 대학 입학 때부터 인생 전반의 설계와 함께 스스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데, 안내자 또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주제가 대학생의 발달적 독서치료에 한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의 중심에서 학습

과 교양을 지원하는 핵심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바른 가치관 함양과 취업준비는 물론 평생학습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Oxford Brookes대학교 도서관, Brunel대학교 도서관, Queen Margaret대학교 도서관, Edinburgh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한 독서치료 주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앞의 <표 5>와 같이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치유적 성격의 내용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의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목록은 외국 대학의 경우, 학생상담소와 연계를 통하여 정신보건 전문가가 독서치료 주제를 선정하고 있고, 부산대학은 독서치료를 전공한 사서들이 모여 도서관 중심의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개발·보완하고 있다. 5개 대학 모두 심리 상담사나 전공사서 등 독서치료에 관해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개발한 주제목록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성격이 유사한 다른 대학도서관에서도 무리 없이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인 외상이나 일상의 문제를 비롯한 개인의 문제 유형은 독서치료로 잘 다루어질 수 있다. 독서치료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면서도 자신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 해가 없다. Stanley(1999)는 독서치료의 효용성을 (1) 자신의 특정한 문제나 환경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고, (2) 자신의 속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3) 사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년기에 부딪힐 수 있는 심리적 상황에서, 전문가가 선정하고, 대학들이 서로 유사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의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은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대학 환경에서 학생 자신이 심리적인 문제를 인식하여 개인적인 요구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청년발달의 이론에서 도출한 세

가지 영역 '육체와 정신발달', '사회·심리적 발달', '인지 발달'과 인지발달 영역 중에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이면서 대학교육의 당면과제인 '진로문제'를 대주제로 추출하여 <표 6>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고, 청년발달 영역의 내용 <표 2>를 중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례의 대학에서 거듭 수정하여 검증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서치료 주제 내용을 본 연구에서 설계한 범주 구분에 따라 해당 소주제 목록으로 그룹화 하였다. 이것들은 대부분 심리적, 일상적 문제로 '육체/정신 발달'의 영역이나 '사회/정서 발달'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상대적으로 내용이 부족한 인지발달 영역의 중주제인 '창의성', '도덕', '인생관', '사고'의 하위 소주제는 국내 청년발달 심리 전문가들의 저술¹⁾ 등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12개의 항목(*표시)을 추출하였다.

진로발달 영역은 허은영(2009)의 진로지도 교과목 프로그램의 주제 구분에 따라 중주제를 설정하였고, 동일

프로그램 주제의 세부 내용과 박동열(2006)의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행동기술적도 개발 영역' 및 정철영 등(1998)이 우리나라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제시하는 '생애 기초능력 영역'의 내용을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6. 결론 및 제언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 요구를 채우고 꿈의 실현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충족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대학생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강화하고 자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적합한 독서치료 주제 모형을 도출하였다.

<표 6> 대학생 발달적 독서치료 주제목록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육체/정신 발달	건강생활	운동(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스트레스, 마음의 평화, 정신건강, 운동
	약물	약물(중독)
	흡연	흡연
	음주	알코올중독
사회/정서 발달	성	여자와 남자, 성폭력, 남성문제, 성정체성
	관계	화, 분노, 용서, 삶과 죽음/상실감, 대인관계, 이성관계, 대인불안, 소통
	사랑	결혼과 이혼
	가족	가정폭력, 학대, 부모와 자녀, 조부모, 입양
	친구	친구
	자아(성장적)	성장의 아픔, 자아찾기, 나이듦, 자신감, 자기존중
	성격(교정적)	자기학대, 우울증, 밀실공포, 성인아이, 걱정, 강박증, 충동, 완벽주의, 꾸물거림, 자해, 도박, 공포, 공황, 독단성
	전자영상매체	인터넷(중독)
	사회적수용	가부장사회, 어른들의 몰이해, 일상의 벽, 생활속의 상처, 집떠남, 문화차이, 자기도움 자원
유머	유머	
인지발달	창의성	성공지능*, 정서지능*
	지성(지적발달)	학습기술, 독서(장애), 학교, 대학원 공부
	도덕	도덕발달*, 정보윤리*, 책임/권리/배려*
	인생관	가치관*, 꿈과 이상*, 멘토*, 종교*
	사고	사고력*, 지각능력*, 추상능력*
진로발달	진로중요성	생애설계와 비전, 진로 설계 및 개발, 행복한 삶
	자기이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자신의 성격이해, 자신의 직업가치, 자기관리 및 개발
	직업이해	직업세계의 변화, 국제감각, 직업정보탐색, 창업과 진로, 직업현장 정보, 조직의 이해, 대인관계
	의사결정	진로장애물 확인과 극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문제해결 능력
	계획실천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자원활용 능력, 기술활용능력, 수리능력, 발표능력

1) - 청년심리학/ 장휘수, - 혼돈의 20대 자신을 말하다/ 김애순, - 청년심리학/ 정옥분, - 청년발달심리학/ 허혜경, 김혜수, - 20대 심리학/ 박금주.

연구에서 독서치료의 유형과 청년발달의 이론을 논하고, 대학생 상담 조사와 타대학 독서치료 주제목록 제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W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해야 할 독서치료 서비스에 적합한 주제모형으로 '대학생의 발달적 독서치료를 주제목록'을 설정하였다. 대주제로 '육체/정신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진로발달'의 4개 영역 설정하여, 중주제와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모든 사람은 거대한 우주의 퍼즐 한 조각씩을 형성하고 있다. 책은 우리들에게 제자리에 없는 조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Stanley 1999). 본 연구의 대학생 독서치료 주제목록은 대학생 시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잘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방적, 교정적인 차원의 독서치료에 제공할 내용을 검토하여 주제목록을 설계하였다. 대학생들이 이러한 주제의 내용을 지침 삼아 자신의 발달을 확인하고,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는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어려움과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 신입생 때부터 발달적 독서치료를 통하여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전개할 수 있다면 대학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학생 발달적 독서치료 목록의 완성을 위해서는 해당 도서 선정 영역에서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들의 많은 관심과 노고 및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정신보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독서치료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고 내용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생 권장도서를 제공하는 많은 대학도서관이 있다. 하지만 인간 발달의 한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균형적인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독서목록이 작성된 예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은 대학생 필수도서 목록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금주. 2008. 『20대 심리학』. 서울: 랜덤하우스.
 김동화. 2010. 미국 대학도서관의 수업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검색 서비스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29-50.
 김애순. 2010. 『혼돈의 20대, 자신을 말하다』. 서울: 시그마북스.

김유현, 오현숙. 2007. 『신입생 실태 및 의식조사』. 오산: 한신대학교 학생상담 센터.
 김장호. 2005. 『한국의 인적자원』. 서울: 법문사.
 노동조, 민숙희. 2010.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3): 15-34.
 박기문, 이규녀. 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2): 103-127.
 박동열. 2006.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25-245.
 박철홍. 2006.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정보의 대학직업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철학적 검토. 『교육철학』, 35: 49-69.
 신주영. 2004. 『독서치료와 도서관의 역할』. 파주: 한울.
 오현숙. 1998.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전망, 영역별 삶의 목표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19-37.
 원유상, 임규상, 이승화. 2008-2010. 『신입생의 특성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지원센터 상담실.
 이정근. 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성원.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철영 외. 1998.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허은영. 2009. 대학생 대상 진로지도 교과목 운영의 효과. 『직업교육연구』, 28(4): 77-94.
 허혜경, 김혜수. 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Bibliotherapy. Fact Sheet. 1982. Urbana, IL: ERIC Clearinghouse on Reading and Communication Skills.
 Cronje, Kenneth B. 1993. *Bibliotherapy in Seventh-Day Adventist Education Using the Information Media for Character Development*. Silver Spring: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ing.
 Feldman, Robert S. 2000.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3rd ed.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Vocational Guidance*

- Quarterly*, 20(3): 169-175.
- Harter, Susan.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uilford, J. P. 1967.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McGraw-Hill.
- Papalia, Diane E. and Sally Wendkos Olds. 1995. *Human Development*. 6th ed. New York: McGraw-Hill.
- Papalia, Diane E., Sally Wendkos Olds, and Ruth Duskin Feldman. 2001. *Human Development*. 8th ed. Boston: McGraw Hill.
- Pardeck, J. T. 1994. Using Literature to help adolescents Cope with Problems. *Adolescence*, 29(114): 421-427.
- Reistsma, F. 1987. Storyteaching. *Teachers and Writers magazine*, 18: 1-7.
- Rubin, R. J. 1978.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London: Oryx Press.
- Schaie, K. W., and S. L. Willis. 2000. Toward a Stage Theory of Adult Cogni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2): 129-138.
- Stanley, Jacqueline D. 1999. *Reading to Heal*. Boston: Element.
- Sternberg, Robert.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인용 웹사이트]

- Bibliotherapy: To Teach or Not to Teach, in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 exploratory stud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8 [online]. [cited 2010.11.15].
<<http://knol.google.com/k/익명/bibliotherapy/9gwpb3xwwbue/7>>.
- 『MOAZINE』. 2010. 취업정보. [online]. [cited 2010.11.15].
<http://olv.moazine.com/search2/?a_id=Tcdfd2RsV2f0y8wOi2yPZqI2&SearchText=%B4%EB%C7%D0%BB%FD+%C3%EB%BE%F7&s_id=3&pg=1&s_width=0&s_height=0&s_activity=True&s_view=R>.
- Varner, Vicky Jo. *Bibliotherapy*. 2009. [online]. [cited 2010.11.15].
<http://www.infj.com/INFJ_Bibliotherapy.htm>.
- Weaver, Susanna. *Non-Traditional Jobs for Special Librarians*. [online]. [cited 2010.11.15].
<<http://www.libsci.sc.edu/bob/class/clis724/SpecialLibrariesHandbook/non-traditional.htm>>.